

리얼리티 수행일기 <D>



이계복

'마하넷' 대표 (송사모 회장)

군 입대를 하기 전 지난 만행 길에 백양사를 거쳐 송광사에 서 1박을 하게 되었다.

고향이 순천인 관계로 최근 거리에 있었지만, 그 때 처음으로 송광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으니 '가까운 곳일 수록 안 가게 된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다.

불교전문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마하넷'을 운영하면서 송광사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

면서 홀수 달은 송광사, 짝수 달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한 지역을 선정해 법회를 본다. 그러나 법회 준비, 사찰 섭외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올 해 부처님오신날을 준비 하면서 두 달에 걸쳐 법회 때마다 '3배 1알'을 하면서 합장주를 2,000 개 만들었다. 이렇게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합장주는 부처님오신날 송광사에서 봉사 활동을 하며 절을 찾는 분들에게 나눠드렸다. 그 분들이 합장주를 통해 잠깐 이나마 선한 마음을 내고 흐뭇한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볼 때 기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지난 8월말 어느 날 밤, 한통을 전화로 받았다.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송사모 활동을 통해 신심을 키워 출가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세울 수 있었고, 드디어 출가를 하게 되었다"고...

신행의 끈 놓지않으려 소임 열심히

송사모 모임의 활성화는 곧 나의 수행

어, 송광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시집 인연으로 인해 지금은 '송광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송사모)'을 이끌고 있다. 송사모는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했던 수련생과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련회 이후를 고민하면서 2001년 9월 만든 모임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현재 여러 사찰에서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모(사찰을 사랑하는 모임)'의 원조격인 송사모의 소임을 맞는다는 것은 여러모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참으로 고생 많은 것을 알지만, 나 처럼 송사모 활동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열심히 해달라"고 말하는데 그 법우님의 말 속에 어떤 내수행이 들어있지 않나 싶다. 대중 소임을 맡은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시는 스님들의 외호를 담당하는 것처럼, 송사모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접하고 신심을 가꿀 수 있도록 모임을 활성화 하는 게 지금 나의 수행이 아닐까 싶다.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요즘, 내가 누군가에서 받았던 법보시처럼 회향하고 싶다.

사회 생활을 하다보면 대들던 활동을 열성적으로 하던 선배나 후배들이 졸업 후 청년회와 신도회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일 텐데, 여러 이유로 신행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 나 또한 그렇게 되지 말자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잡은 것이 소임을 맡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 것 같다.

매월 1회 정기적인 법회를 보

수행문답 사이버선방에 '자리' 잡는다

"마음이 시비분별 없이 있는 그대로 비추어내듯이, 다가오는 상황을 담담히 간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비추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 텐데, 의식이란 놈이 자꾸 지금이 순간 다른 뉘를 추구하게 합니다. 마음은 왜 제 주장이 없이 인연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드러납니까?"(현정선원 ID '나무')

"보되 붙이 없고, 들되 들음이 없고, 하되 힘이 없어서 여래(如來)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본래 일체만법이 다란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이요, '짓는 자'도 '받는 자'도 없는데, '누가' 있어서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하겠어요? 이 모두가 허망한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허망한 법을 하나도 버리지 않는 것이 또한 불법임을 알아서, 모름지기 집착하지도 말고 여의지도 말아야 합니다."(대우 법사)

선어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러한 문답은 더 이상 소수 선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선지식으로 믿어지는 스님이나 재가법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들어가 질문을 던지면 된다. 늦어도 하루 안에 선리(禪理)에 어긋나지 않는 법문을 들을 수 있다.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문득 깨닫는다는 '언하변오(言下便悟)'를 가능케 하는 선문답과 점검. 그동안 간혹 수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선지식 및 지도점검 시스템의 부재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문답식 수행점검이 사이버 선방을 통해 정착되고 있다.

현재 자체 사이트를 가진 불교 사이트는 200여 곳. 하지만 일반적인 수행상담을 넘어선 전문적인 수행문답이 이뤄지는 사이트는 20여 곳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정통 조사선의 선문답 형식에 따라 수행문답을 하고 있는 사이트는 '현정선원', '무심선원', '선림도량', '마하수련원' 등이 대표적. 특히 현정선원과 무심선원의 선원장인 대우 법사와 김태완 법사는 실제로 선문답식 법회를 통해 조사

선의 공부를 지도하고 있어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장 활발한 문답이 이뤄지고 있다.

선 계열의 사이트에 못지 않게 위빠사나 사이트들의 수행문답도 활발하다. 위빠사나 수행센터의 통합 사이트인 '위빠사나'를 비롯해 '보리수선원', '호두마을', '여래선원', '초기불전연구원', '연방죽선원' 등이 수행 과정상의 의문에 대해 친절하게 답변하고 있다.

이중 '위빠사나'에서는 각 수행센터 및 행법별로 스님과 재가법사가 직접 질문에 응하고 있다. 붓다피아 스님이 '붓다피아 월드 게시판'을, 각국 스님이 '불교 교학의 장'을, 일종 스님이 '고연카 수행의 장'을, 묘원 법사가 '사념처 수행의 장'을, 정원 법사가 '마하시 수행의 장'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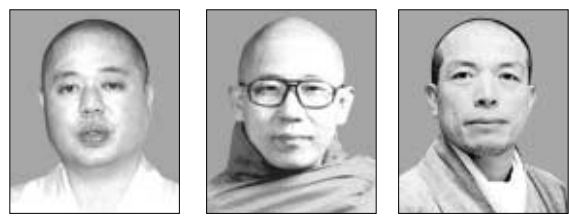
또한 불교명상 관련 사이트들의 문답 코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 명상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고 있다. '관수련회'의 구선 스님, '명상 아카데미'의 혜봉 법사, '바라보기명상'의 박석 교수(상명대), '참나찾기교육원'의 박민수 원장이 직접 답변한다.

이밖에 염불수행과 관련, 정목 스님은 이론과 수행을 겸비한 답변으로 염불수행자들의 환희심을 얻고

있는 '아미타과'를 운영중이다. '호흡에 맞춰 절하기' 수행으로 유명한 정경 스님은 '소리산 참선캠프'에 사이버 수행상담 코너를 마련해 신도 대하듯 자상하게 수행과정을 점검해 주고 있다. 안국선원, 축서사 등 참선도량에서도 수행상담 코너를 통해 수행문답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수행 점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같이 사이버 수행문답은 청법자로서의 예의가 없거나 장난기 있는 불청객, 또는 타종교인 등에 의해 다소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지만 점차 건전한 수행문화로 자리잡고 있다는 게 사이트 운영자들의 평가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구선 스님

◇붓다피아 스님

◇청견 스님



◇대우 법사

◇박석 교수

◇박민수 법사

◆수행문답하는 사이트

단체	인터넷 주소	대표자
현정선원	www.fuoyee.or.kr	대우 법사
무심선원	www.mindfree.net	김태완 법사
아미타과	cafe.daum.net/amitapa	정목 스님
위빠사나	vipassana.buddhism.org	묘원 법사 등
소리산참선캠프	cafe.daum.net/sorisan	정경 스님
관수련회	www.kwan.or.kr	구선 스님
마하수련원	www.mahazen.org	벽공 스님
선림도량	www.daedusun.org	운거 스님
여래선원	www.buddhapia.cc	붓다피아 스님
호두마을	www.vmcwv.org	혜연 스님 등
안국선원	www.ahnkookzen.org	수불 스님
축서사	www.chooksersa.org	무여 스님
참나찾기교육원	www.minssozen.pe.kr	박민수 법사
초기불전연구원	www.chobul.com	대림 스님
바라보기명상	www.paraboki.net	박석 법사
명상아카데미	www.bodhitao.com	혜봉 법사

성법스님, 법기회 수행법 비판 연재



극락정사 회주 청봉스님에 이어 '세존(www.sejon.or.kr)' 사이트 운영자인 성법 스님(사진)이 법기회 강정진 법사의 수행법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법 스님이 자신의 사이트 내의 '성법 스님 무설설당(無說說堂)' 코너에 법기회 강정진 법사가 펴낸 <영원한 대자유인>(공리)을 비판하는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법기회'의 <영원한 대자유인>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지난 9월 13일부터 매일 한 차례씩 글을 올린 성법 스님은 원문에 해당하는 구절을 제시하고 그 밑에 비판 내용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연재하고 있다. 스님은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비판하고 오류를 짚을 계획이라고 한다.

성법 스님이 이 글을 연재하게 된 계기는 "최근 나온, <영원한 대자유인>을 비판하는 책 <영원한 대자유인>을 읽고 허구성을 지적함(경서원의 내용이 너무 급조되다 보니 감점까지 실린 듯한 내용 때문에 <영원한 대자유인>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는 것. 또한 스님이 생각하기에 <영원한 대자유인>의 내용에 오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교계에서 제대로 된 비판이 나오지 않고 있고, 큰스님들 역시 별다른 언급을 안 하다보니 책의 내용이 옳다지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현실 역시 비판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스님, 진짜 그 내용이 맞습니까?"하고 들어오는 불자들이 꽤 많다고 한다.

성법 스님은 이번 비판의 목적에 대해 "상(相)과 명색(名色)에 집착하는 이들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또한 세간과 출세간의 자질한 시비를 떠나 오직 선사다운 계승과 침묵으로 답하는 큰스님들의 품위를 지켜드리기 위함이기도 합니다"고 밝혔다. 권경진 기자

보리수선원, 미안마 스님 초청 법회

서울 보리수선원(원장 붓다라키테)은 오는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미안마 우 또다나(U Sothana) 스님과 우 만달파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연다. 두 스님은 팔라삼장에 능통한 마하시수행센터의 법사들로, <대법처경> 등을 설명한다. 모두 7회에 걸쳐 열리는 이 법회는 <위승디 파가>(전 2권 화은각), <아난존자의 일기>(전 4권 운주사), <

초전법륜경, 무아경>(화은각)의 저자인 법라 스님 통역으로 진행된다. (02)517-2841 김재경 기자

만일염불결사회 철야염불정진

만일염불결사회는 10월 5일(매월 첫째 일) 오전 10시 성남 정도사에서 보광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을 초청, '극락세계 발원문'을 주제로 법회를 갖는다. 이어 10월 18일(셋째 토) 오후 8시부터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연다. (031)723-9797

법왕정사, 지도자 과정 수행

양평 법왕정사(주지 정경)가 9월 21일 서울 군자법당 개원식 및 부처님 집안 불불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도심 수행공간으로 거듭난다. 주말 수련을 중심으로 출가 예정자, 포교사 희망자, 수행지도자를 위한 교육도량으로 자리잡은 법왕정사는 이날부터 군자법당에 4개월 과정의 '불교지도자 수행 과정'을 개설한다. 낮반은 매주 목요일 오후 1~3시, 저녁반은 오후 7시30분~9시30분 수행을 지도하며 예불(금강경 봉독, 석가모니불 봉독, 108배, 축원 등),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외선 수행 및 도인 체조, 카운슬러 상담 등의 자율수행 과정도 마련했다. (02)456-4994



법구경 강의 80송

불교방송에서는 동국대 교수, 법산스님의 설법집《법구경 강의 80송》을 테이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 현대인들의 마음에 한구절의 시처럼 쉽게 다가오는 법구경을, 법산스님은 알기쉬운 생활방편을 곁들여 불교를 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잔잔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밤은 길어라.
피곤한 사람에게 길은 멀어라.
어리석은 사람에게 생,사 길거니
그는 바른 법을 모르기 때문일세.
- 법구경 수삼품



구입문의 불교방송 포교자료팀
전화 (02)706-3502~5
가격 70,000원(C70×20EA)

BBS 불교방송

서울FM101.9MHz · 부산FM89.9MHz · 광주FM89.7MHz · 대구FM94.5MHz · 청주FM96.7MHz · 춘천FM100.1MHz